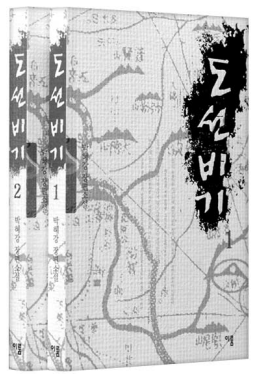


도선 국사에 얽힌 풍수 이야기



도선비기 1·2
박해강 지음
이름 | 각 권 9000원

“도선 큰스님은 선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찌 풍수와 같은 잡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요?”

“선종불교(禪風不二),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풍수는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천의 풍수를 보는 마음과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진배없어야 합니다. 만약 둘 사이에 한치의 틈이라도 벌어져 참마음과 상합되지 않으면 방술적인 풍수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3대 고승중 한명이며, 고려 왕조의 개국과 풍수지리로 오늘날 한국 사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도선 국사. 박해강의 역사소설 <도선비기>에서 도선국사가 절을 세우는데 비협조적인 지방 호족과 나누는 대화이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각 지역에서 준동하는 호족들과 그들의 비호를 받아 끝없는 정쟁을 일삼는 왕족들로 인해 힘없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통일신라 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도선국사가 왜 전 국토를 순

-
- 결합있는 땅에 사찰 지어 보안
-
- 地氣 강한 곳 불상 세워 누르고
-
- 탑 세워 땅의 기운 모으고
-
- 등진 땅엔 당간 세워 태평 기원
-

례하며 혹독한 수행과 구도의 과정을 거친 후 풍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스님이 땅을 화두로 삼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것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스님은 결합있는 땅에 사찰을 지어 보안하고, 땅의 기세가 과도한 곳에는 불상을 세워 누르고, 땅의 기세가 달아나는 곳은 탑을 세워 머무르게 하고, 등진 땅은 당간을 세웠다. 백제와 신라등 동서가 대립하는 국경에도 절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제도하게 되어 마침내 천하가 태평해지기를 바랐다.

도선국사의 풍수사상은 완벽한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완벽한 땅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불안정한 땅을 안전하게 고쳐서 쓰는 ‘비보(도)와서 모자람을 채움’가 핵심이다.

스님은 소설 <도선비기>에서 만인의 우두머리인 임금이 갖춰야 할 품위와 능력을 기록해 놓은 제왕학의 핵심인 수기와 처인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열된 겨레를 끌어 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스님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예언하듯 미래의 지도자는 바다뿐 아니라 겨레의 산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인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선비기>를 쓴 중견 소설가 박해강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리얼리즘 문화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그는 “도선국사의 <도선비기>에 지역 갈등,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한국사회에 던지는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승만경 강설
해경 스님 지음
갑출판 |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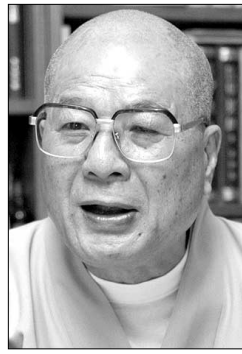
깨달음 구하는 여성들에게

인도 아유사국 왕비였던 승만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여인의 성불을 가르친 경전인 <승만경>. 대승불교의 진리를 설명한 여러경전중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경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로 신라 선덕여왕의 아호가 ‘승만’일 정도로 <승만경>은 삼국시대 일반사회에 널리 유포됐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배불숭유정책이 널리 유포되면서 여성비하 흐름속에 자연스럽게 <승만경>도 세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번에 발간된 <승만경 강설>은 법화경 강설의 대표적 권위자이며, 양주 무설정사 조실인 해경 스님(사진)이 자기자신을 뚜렷하게 파악하고, 행복의 길을 살아가도록 여성불자들에게 전하는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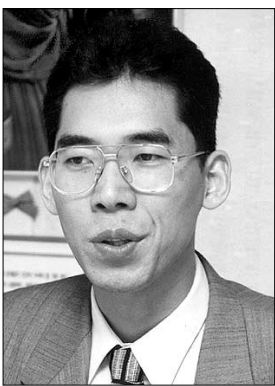
<승만경>은 여타 경전처럼 여러 가지 비유가 없으며 중생의 청정(淸淨)한 본마음을 가리키는 여래장(如來



藏, 여래를 내장을 열어 나타내 보여준다. 책의 구성은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는 서분(序分), 여래장사상을 설한 정중분(正宗分), 경이 설해진 이유를 현재 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전하라는 의미의 유통분(流通分)으로 나뉘어져 있다.

해경 스님은 1956년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출가했다. 스님은 법화불교대학 학장이고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천수경’ 의미 얼마나 아세요?

김호성 교수, 신행론적 입장서 고찰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때마다 독경하는 <천수경>은 한국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지대한 만큼 <천수경>의 의미나 가치에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사진)가 13년간 연구해 <천수경>의 요체를 정리했다. <천수경>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수행의 지침을 제시하는지, 신행론적 입장에서 고찰한 <천수경과 관음신앙>이 그것.

이 책은 일본의 탐구를 통해 <천수경>이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을 좀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고찰, 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게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책에서 “우리가 보통 도량석 불공 재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천수경>은 독송용”이라고 말한다. 흔히 사찰이나 신행단체 등에서 편집해서 쓰는 <법요집>이나 <불자독송부>집에서 볼 수 있는 <천수경>이라는 것이다.

또 “독송용 <천수경>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뽑아내고 다른 다라니와 현교의 교설 그리고 의식과 독송의 편리를 위해서 새롭게 편집된 경전 및 의례만”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불교화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대정신수대장경>에는 현행 독송용 <천수경>이 그대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정신수대장경>의 분류에 의하면 <천수경>은 밀교부에 속한다. 밀교부 3(제20권)을 살펴보면 본

래의 <천수경>은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설하면서 관세음보살 신앙을 고취하는 경전과 의례가 19종이나 된다.

의례에서 설하고 있는 수행법은 크게 들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지송방법이다. 둘째는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나오는 불, 보살을 비롯한 만다라의 도상으로 그려 모시는 방법이다. 이들 두가지 수행의례는 우리 불교사에서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저 일상으로 영송하는 것 말고는

<천수경과 관음신앙>은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제 1부 <천수경>의 요체’ 부분은 수행자들을 위한 <천수경> 해설을 목적으로 저자의 솔직담백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15편이 담겨있다. ‘제 2부 <천수경>과 관음신앙’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보다 긴 형식의 글 11편으로 채워져 있다.

‘제 3부 <백화도량발원론>의 세계’는 저자의 무르익은 신행력이 절절히 우러난다.



천수경과 관음신앙
김호성 지음
동국대출판부 | 1만2000원

김원우 기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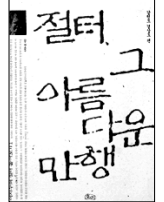
■ 불교의 이해(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무우수) =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최기표)가 발간한 불교학 입문서이다. 이 책은 불교 문화, 사상과 결합하여 변화하고 발전된 교리들과 수행론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 불교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과 사건 중심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 종파나 학풍이 형성된 배경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책은 1장 붓다의 생애와 승단의 성립, 2장 초기불교의 근본교설과 수행론, 3장 대승불교의 성립과 중심이념, 4장 인도불교의 주요학파와 교리, 5장 동아시아 한문불교와 수행론, 6장 티벳불교, 7장 남방불교의 이해, 8장 현대사회와 불교로 구성돼 있다.



불교의 이해
김경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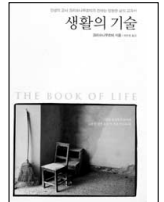
■ 절터, 그 아름다운 만행-강원도, 경상도 편(이지우, 호미) =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절터 25곳을 돌아보고 느낀 점을 사진 218점과 함께 담았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이지우씨는 당인 절터에서 출출함에서로 잠깐 새벽부터 밤이 이슬하도록 머리는 밤을 지새면서까지 한곳에 머물곤 한다. 자연히 그의 걸음은 사색의 공간으로 채워진 만행이 되었고, 그만큼 자유로움으로 밝아진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절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절터, 그 아름다운 만행
이지우 지음

튼실한 인문학적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깊은 철학적 사유가 돋보이는 이 책은 새로운 차원의 절터 답사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편’과 ‘경주 편’도 잇달아 발간될 예정이다.

■ 생활의 기술(크리슈나무르티, 황금나침반) = 달라이 라마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칭송했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자 전 세계의 스승으로 불리는 크리슈나무르티의 명상 선집. 크리슈나무르티는 특정 종교나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진리와 자유의 본질, 심오하고 신선한 삶의 태도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명쾌하고 큰 울림을 준다. 그는 논리에 치우친 차가운 스승이나 자기 기만과 권위에 갇혀버린 가짜 스승이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을 바탕으로 자신과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과 가장 인간적인 삶을 해법을 제시해 준다.



생활의 기술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yosiamun.com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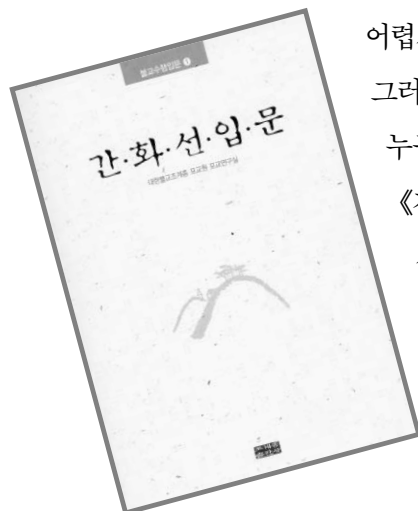
- 위선 끊고 열불하게 오세투지 작가의 집, 한경애, 9000원
- 이야기로 깨닫는 기쁨 한연, 사라 권오버, 9800원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무한, 법성스님, 1만원
- 꽃피는 나라, 미얀마 윤주사, 김형규, 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불교수행입문 1 <간화선입문>

신도교재 1 <불교입문> 개정판

생활인을 위한 간화선 입문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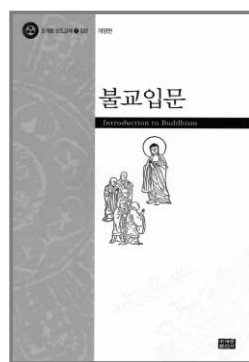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계종 정통선법 간화선! 그러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발심한 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행법입니다. <간화선입문>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초심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조계종 최초의 간화선 입문서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 조계종출판사 · 정가 8000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동일빌딩 8층(2006.3.30. 이전주소) | 전화 (02)733-6390 | 팩스 (02)720-6019 조계종출판사

불자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불교 입문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정가 7,000원

96년 9월 초판 발행 후 장기 베스트셀러인 <불교입문>이 불교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보강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불교 입문자들의 필수 지침서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신도교재 ● 교리
불교의 이해와 신행
· 정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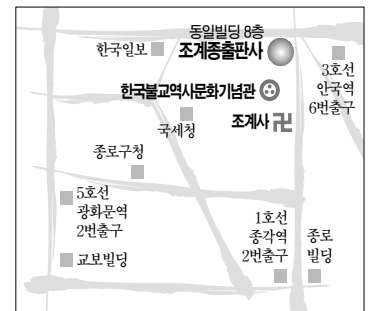
조계종신도교재 ● 역사
불교사의 이해
· 정가 9,000원

조계종신도교재 ● 문화
불교문화
· 정가 9,000원

조계종출판사가 세 보금자리로 이전합니다

이전일 | 2006년 3월 30일 (목)

조계종출판사는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종단의 포교 활동에 일익하는 주춧돌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출판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동지 동일빌딩 8층
T. 02)733-6390(대) | F. 02)720-6019
※ 전화번호도 이전과 함께 변경됩니다.